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대한 考察

이 경 숙* · 문 치 응**

< 目 次 >

I. 서론	2. ‘昔’의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II. 字書 및 先秦 文獻의 ‘古’와 ‘昔’	『說文解字』 字義
III. 『古辭辨』의 ‘古’와 ‘昔’	V. 『孟子』의 ‘古’와 ‘昔’에 대한 時代 解釋
IV.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解釋	1. ‘古’의 時代 2. ‘昔’의 時代
1. ‘古’의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IV. 결론

< 국문 초록 >

본고는 先秦文獻의 내용과 여러 字書を 참고하여, 古와 昔의 의미를 살펴보고, 『古辭辨』의 의미 비교, 甲骨文字形에 대한 해석, 『說文解字』 字義 해석 등과, 『孟子』에서 나타나는 ‘古’와 ‘昔’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통하여, ‘古’와 ‘昔’에 나타나는 시대에 대한 해석 및 규정과 구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古’는 上古, 中古, 下古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며, 上古 시대는 인류의 까마득히 먼 과거 시대를 가리키며, 문자가 없었으며, 結繩으로 통치하였고 이 시대를 ‘昔’이라고도 하였다.

『古辭辨』에서는 비록 ‘古’와 ‘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지는 않

* (제1저자) 공주대학교 강사 / jing20000219@hanmail.net

** 흥익재단 연구센터장 / cumoon@hanmail.net

았지만, ‘古’의 핵심 의미가 오래 전 시간, 과거의 시대를 가리키고, ‘昔’은 이 의미와 함께 까마득한 과거, 어제, 가까운 과거의 시간까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字形, 字義에 관한 설명을 종합하면, ‘古’字에서는 방패, 견고한 갑옷, 전쟁, 이야기 등의 정보들을 분석해 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오래 전 과거, 혹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다 등의 의미가 생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昔’字에서는 홍수, 오래 전 시대, 과거, 말린 고기 등의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으며, 이 의미에서 가까운 과거, 어제 등의 의미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의 내용을 특정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고전 중에서 비교적 보편성과 대중성을 겸비하고 있는 『孟子』를 선택하여 탐색하였다. 『孟子』에서 나타나는 ‘古’는 夏殷周와 春秋時代를 두루 표현하면서도 특히 周王朝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하여 칭송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昔’은 좀 더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데, 어제, 가까운 과거, 春秋時代, 殷, 夏, 堯舜時代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상고까지, 내려가면 며칠 전인 가까운 과거, 어제 등의 의미까지 표현한다. ‘古’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대에 걸쳐 칭송할 만한 인물에 대하여 논할 때도 사용되었다.

[주제어] 어제, 가까운 과거, 오래 전, 홍수, 방패, 전쟁

I. 서론

우리가 옛 문헌을 펼쳐 보면, ‘古’字와 ‘昔’字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이 글자들은 보편적으로 ‘옛날’, ‘오래전 시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두 글자에 대하여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대적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모든 문헌에서 일률적이고, 일관되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몇몇 문헌의 예와 보편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四書의 하나인 『孟子』를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仁義忠信，樂善不倦。此天爵也。公卿大夫，此人爵也。古之人，脩其天爵而人爵從之。今之人修其天爵，以要人爵。”(어짚, 의로움, 충성, 신의 등 좋은 일을 즐기 하며 싫증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천작이다. 公卿大夫같은 벼슬, 이것이 바로 인작이다. 옛날 사람은 하늘의 벼슬을 닦고 사람의 벼슬을 따랐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의 벼슬을 닦고, 사람의 벼슬을 요구한다.)『告子上』

위의 문장은 『孟子·告子上』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기서 가리키는 “古之人”은 오래전 시대 사람인 옛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이 문장 내용만으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옛 문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이 ‘古’를 어느 시기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역시 옛날을 가리키는 ‘昔’字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여러 字書들을 참고하고, 기존 연구 성과인 『古辭辨』과 일반적인 先秦文獻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字形의 本義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시대적 구분을 설명해보고자 『說文解字』와 甲骨文의 字形 해석을 찾아보고, 이로부터 산출된 ‘古’와 ‘昔’의 시대적 해석과 구분이 구체적 문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孟子』를 통하여 탐색해 볼 것이다. 『孟子』를 선택한 이유는 四書 중의 하나로 대중성과 보편성이 큰 문헌으로 볼 수 있으며, 孟子에 대하여 “변론하기를 좋아한다.”는 평가와 『孟子』에는 온갖 말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점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게다가, 『孟子』는 孔子 후대의 저서이고, 孔子의 사상을 推尊한 저술이기에, 孔子가 말한 ‘古’의 의미까지도 아울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인하여, 맹자이외에도 등장하는 고와 석에 대한 다양한 분석, 혹은, 논어와 맹자의 고와 석의 비교 연구 등에 대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 “『論語』와 『孟子』에 보이는 ‘古’와 ‘昔’에 대한 비교 연구”나 그 이외의 좀 더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는 ‘古’와 ‘昔’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논문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고에서는 『孟子』의 ‘古’와 ‘昔’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字書 및 先秦 文獻의 ‘古’과 ‘昔’

『玉篇』에 보면 ‘古’는 “久也, 始也”라고 하였고, 『正字通』에서는 “遠代也.”라고 하여 처음 시작하던 시대, 아주 멀고 요원한 과거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論語·述而』의 “述而不作, 信而好古.”(옛 것을 익혀서 전해 주기는 하되 창작하지는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한다.)이라는 말과 『論語·憲問』의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했는데, 요즘 공부하는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이라는 문구에서 ‘古’는 본받아야 마땅한 시기로 추앙되고 있다.

- 『書·堯典』 “日若稽古帝堯, 日放勳。欽明文思安安.”(옛 堯帝를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다.)
- 『易·繫辭下』에 보면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옛날에 包犧氏가 천하에 왕으로 있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상을 관찰하고, 땅을 굽어보아 법을 관찰하였다.)
- 『禮記·祭義』 “以事天地, 山川, 社稷, 先古.”(천지, 산천, 사직, 조상에 제사를 지낸다.)
- 『呂氏春秋』 “故審知今則可知古.”(지금울 살펴 알면, 과거를 알 수 있다.)

여기 『書經』에서 ‘古’는 堯舜 時代를, 『周易』에서는 伏羲 時代를 말하고 있고, 『禮記』에서는 ‘先古’라고 하여 옛 조상을 의미한다. 『呂氏春秋』에서는 원근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않은 지난 과거를 말하기도 하였다. 즉 문헌에 따라 가리키는 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古”는 문헌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또한 ‘古’를 上古, 中古, 下古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康熙字典·口部』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¹⁾라고 하였고, 『句讀』에서도 “伏羲上古, 文王中古,

1)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p.99.

孔子下古。”라고 古를 분류하였다. 『義證』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後古。”²⁾라고 하여 古를 上古, 中古, 後古로 분류하여 下古대신에 後古라고 표현한 점이 다르다.³⁾ 『禮記』에서는 “神農爲中古”⁴⁾라고 하여 神農 시대를 伏羲시대와 같은 上古라고 하지 않고, 中古시대라고 하였다. 이는 『康熙字典』, 『句讀』, 『義證』 등의 시대분류와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멀다고 볼 수 있다.

- 『韓非子·五蠹』 “上古之世, 人民少而禽獸眾. 人民不勝禽獸蟲蛇, 有聖人作, 構木爲巢以避群害,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曰有巢氏.”(上古시대는 사람들이 적었고, 동물들은 많았다. 사람들이 들짐승, 날짐승, 뱀, 벌레 등을 이길 수 없었다. 성인이 나와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위험을 피하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 有巢氏라고 이름 하였다.)
- 『易』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上古에는 結繩으로 다스리고, 後世의 聖人は 이것을 바꾸어 書契로 하였다.)《白虎通德論》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上古시대에는,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생활함으로써, 짐승의 해를 피하였으며, 結繩으로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하였고,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는 書契로 발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許慎의 『說文解字序』에서 “及神農氏, 結繩爲治, 而統其事. (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들을 통일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 보이는 “謂自庖犧以前, 及庖犧及神農, 皆結爲治, 而統其事. (庖犧이전에서부터, 庖犧와 神農에까지, 모두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을 통일시켰다.)”에 의하면, 伏羲, 神農 시대는 모두 結繩을 통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같은 上古시대로 묶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또 『莊子·胠篋』 “昔者 容成氏, 大庭氏, 伯皇氏, 中央氏, 栗陸

2)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三上 古部 p.948.

3)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原本인 張玉書와 陳廷敬等(1716)의 『康熙字典』는 明朝의 梅膺祚 『字彙』와 張自烈 『正字通』을 기초로 증보됨.

4) 『毛詩正義·卷十四 十四之一』.

氏, 驪畜氏, 軒轅氏, 赫胥氏, 尊盧氏, 祝融氏, 伏羲氏, 神農氏; 當是時也, 民結繩而用之。(昔에 容成氏, 大庭氏, 伯皇氏, 中央氏, 栗陸氏, 驪畜氏, 軒轅氏, 赫胥氏, 尊盧氏, 祝融氏, 伏羲氏, 神農氏가 있었는데 이 때 당시에 백성들이 새끼로 매듭을 지어 기호로 사용하였다.)⁵⁾에도, ‘昔’에는 伏羲, 神農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씨족, 부족 사회에서 結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기의 ‘昔’은 上古시대와 같은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⁶⁾

2장의 내용을 소략하자면, ‘古’는 上古, 中古, 下古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上古’는 문자발생 이전의 시대이며, ‘昔’이라고도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Ⅲ. 『古辭辨』의 “古”와 “昔”⁷⁾

1. ‘古’

1) ‘古’와 ‘昨’

- “古和昨也是和今相對的, 但它們表示的距今的時間不同。”(古와 昨은 今과 상대적인 말이다. 그러나 지금과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이 두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
- “昨最初只是昔的異體字。”(昨은 처음에는 단지 昔의 異體字였다.)
- “昨是昔的同源分化字, 它分化出的是昔的最近的過去那一部分意義, 後來它專指日或隔夜, 指剛過去的那一天。”(昨은 昔의 同源分化字이다. 이것이 分化되어 나온 것은 昔의 최근의 과거 일부분이라는 의미이다. 후에 昨은 하루 혹은 하루 밤이 지난 것만을 가리키며, 이는 막 지나간 날을 말한다.)

5) 이하 문헌의 대부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http://ctext.org/guanzi/shu-yan/zh>:(經典)(검색일:2019.6)와 <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검색일:2019.6)을 참고하여 인용함.

6) 景舜逸, 『中華大字典』, 中華書局出版, 1915, p.202.

7)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年, 1993, p.11. 王鳳陽, 『古辭辨(增訂本)』, 中華書局出版年, 2012.

위의 내용은 『古辭辨』에 나오는 설명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初期에 ‘昨’은 ‘昔’의 異體字로서 사용되다가, 후에 ‘昔’과 分화되고, ‘昔’의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인 ‘어제’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陶潛『歸去來辭』“實迷途其未遠, 覺今是而昨非(정말로 길을 잘못 들었지, 그러나 그렇게 멀리오지는 않았어, 오늘의 선택이 정확하고 과거의 행위가 미혹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와 王安石『憶昨詩示諸外弟』“憶昨此地相逢時, 春入窮谷多芳菲.”(지난날을 생각하니 이곳에서 만났을 때는 봄이 되어 깊은 산속에는 순무들이 많았었지.)의 “昨”은 ‘昔’에서 완전히 分화되기 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文脈 속에서 의미를 해석 하여야 한다.

반면에 『顏氏家訓·序致』“夜覺曉非, 今悔昨失(밤에 아침의 그릇됨을 깨닫고, 오늘 어제의 실수를 후회한다)”의 “昨”과 梅堯臣『集劉舍人宅』“開目卽是今, 轉目已成昨(눈을 뜨면 오늘이고 눈을 한 번 돌리니 벌써 어제가 되네.)”의 “昨”은 ‘昔’에서 완전히 分화된 의미로 사용되어, 모두 ‘어제’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昨”은 ‘昔’에서 分화되어 어제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分화되기 전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다.

2) 古와 故⁸⁾

- ‘古’, ‘故’雖然都是非‘今’, 但有遠近之別: ‘古’側重的是年代久遠, ‘故’側重的是非現在的, 是原先的, 往日的. ‘古’都是歷史悠久的都城, ‘故’都是從前的都城. ‘古人’是歷史上的人物, ‘故人’是舊友, 從前的相知. 就參照點來說: ‘古’近於始, 它是從起點算起的, 是離起點近而離終點遠的時間. ‘故’則是由‘今’算起的, 是‘今’的逆推. 是非現代的, 是過去的. (‘古’와 ‘故’가 비록 모두 ‘今’이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원근의 구별이 있다. ‘古’는 년대가 오래되었다는 의미에 치중하고, ‘故’는 현재 것이 아니고, 원래의 것, 지난날의 것 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 ‘古’는 역사가 오래된 도읍지를 말한다. ‘故’는 예전의 수도를 말한다. ‘古人’은 역사상의 인물을 말하고, ‘故人’은 오랜 친구, 예전에 알았

8)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pp.11-12 ; 王鳳陽, 『古辭辨(增訂本)』, 中華書局, 2012.

던 사람을 말한다. 기준점으로 말하자면, '古'는 근원, 처음과 가까우며, 기점에서부터 헤아린 것으로 기점과 가깝고 종점과는 먼 시간을 말한다. '故'는 '속'에서부터 따져 들어간 것으로, '속'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역산했을 때, 현재가 아닌, 과거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에서는 '古'와 '故'의 공통점이 모두 '속'과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구별을 하자면, '古'는 『莊子·外物』“夫尊古而卑今，學者之流也”(무릇 옛것을 중시하고 지금의 것을 낮추어보는 것은 학자 선생의 무리들이다.)와 『荀子·天論』“生於今而志乎古”(속에 태어났으면서도 뜻은 고에 있다.)의 “古”처럼 기점에서 계산하여 오래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故'는 『論語·爲政』“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와 같이 지나간 것이라는 의미,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楚辭·離騷』“國無人莫我知兮，又何懷乎故都”(온 나라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또 옛 도읍에 미련을 가지는가)에 보이는 “故都”는 지금의 도읍지나, 새 도읍지가 아닌, 이전의 도읍지, 혹은 과거의 國都를 말한다.

2. ‘昔’

1) 까마득한 옛날

- “昔和今是相對的，所以成語裏常說‘今非昔比’，‘撫今追昔’等。昔表已過去的時間時，概括性較大，它既可以指洪荒的遠古，又可以指剛剛度過的昨天。”(昔과 수는 상대적이다. 成語에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 ‘지금 변화가 너무 많아 옛날과 비할 바가 아니다(今非昔比)’와 ‘현실을 직면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니(撫今追昔)’등이 있다. 昔이 이미 지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낼 때, 범위가 매우 개괄적이어서 까마득한 옛날, 혼돈 몽매한 옛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막 지나간 어제를 말하기도 한다.)

‘昔’도 ‘속’과 상대적인 의미로, 과거를 말하며, 특히 까마득하고 혼돈되

며 몽매한 옛날을 말한다. 예를 들면, 『莊子·齊物論』 “昔者十日並出, 萬物皆照(昔에 태양이 열 개가 같이 나와서 세상을 함께 비추다)”의 ‘昔’과 『莊子·天下』 “昔者禹之溷洪水, 決江河而通四夷九州也, 名山三百, 支川三千, 小者無數.”(옛날, 우임금 시대 홍수가 다 침몰시켰을 때, 강하를 터서 사방 구주로 통하게 한 것이, 명산은 삼백이고 지류천은 삼천이며, 작은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의 ‘昔’은 까마득한 옛날을 말하며, 특히 “昔者禹之溷洪水”의 ‘昔’은 홍수가 나던 시대를 말한다.

2) 가까운 과거나 어제

- “和‘昔’意義相近的還有‘曩’和‘嚮’。‘曩’，‘嚮’(亦作‘鄉’，鄉，向，現通用簡體字‘向’)是同源詞。‘嚮’有很多意義，其中之一是表示將近或挨近的意思。”(昔과 의미가 서로 가까운 것으로, ‘曩’과 ‘嚮’이 있다. ‘曩’과 ‘嚮’은 同源詞이며, 또 曩, 鄉, 向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금 통용간체자는 ‘向’이다. ‘嚮’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거의 가깝다, 근접하다는 의미이다.)

‘昔’은 까마득한 옛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상 가까운 과거나 어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莊子·齊物論』의 “是今日適越而昔至也。(오늘 율나라로 가면서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 것)”에 보이는 ‘昔’은 어제를 말하고, 『知被遊』의 “昔者吾問未有天地可知乎, 夫子曰可, 古猶今也。昔者吾昭然, 今日吾昧然。敢問何謂也?”(저번에 제가 天地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니,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가능하다고 하시면서,古는 今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확연히 알았는데, 오늘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감히 묻겠는데 어찌된 일인가요?)에 보이는 ‘昔’은 방금 지난, 며칠 안 된 과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장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말하자면, ‘古’는 起點, 시작점에서 가까운 먼 옛날 시대를 가리키고, ‘昔’은 까마득한 옛날이나, 시간상 가까운 과거, 어제를 가리키기도 한다.

IV.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解釋

1. ‘古’의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1) 방패, 갑옷, 견고, 그릇

𠄎, 𠄏, 𠄐, 𠄑 등은 “古”의 갑골문 자형이고, 金文에는 𠄒, 𠄓, 𠄔, 𠄕, 𠄖 등으로 나타난다.⁹⁾ 우리는 이 고대 자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갑옷이 그릇에 담겨있는 모양¹⁰⁾이라고도 하고, 中이나 𠄗 등을 모두 방패의 모양으로 보아, 아래 부분의 “口”는 방패(𠄗)의 견고한 특징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固’字가 능히 분화되어 나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다른 글자인, “強”字의 本字인 “𠄘”에 보이는 “口”도, 弓의 ‘강하다’는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본다.¹¹⁾

2) 입으로 전하다, 과거

『說文解字』에서 “故也。從十、口。識前言者也。”(古는 아주 오래된 년대를 말한다. 十과 口의 의미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전대의 언어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徐鍇의 『繫傳』에서 “古者無文字, 口相傳也.”라고 하여 古에는 문자가 없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하였고, 徐鉉은 말하기를 “十口所傳是前言也.”라 하여 열 개의 입으로 전한 것은 앞의 이야기라고 하였다.¹²⁾

여기서 “古”란 입에서 입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말로 전하여 기억했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오래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許慎이 漢代 당시 자형의 변화를 근거로 자형의 본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9) 李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2004, 2冊, p.683.

10)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出版, 2008, p.138.

11)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p.164.

12)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三上, 古部, p.948.

2. ‘昔’의 甲骨文 字形과 『說文解字』 字義

1) 홍수, 오래전 시대

𣎵, 𣎶, 𣎷, 𣎸 등 자형이 갑골문에 보이고, 금문은 𣎹, 𣎺, 𣎻, 𣎼, 𣎽 등으로 나타난다. 葉玉森은 𣎵, 𣎶이 홍수가 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李學勤은 “古人殆不忘洪水之𣎵, 故制昔字。(고인이 아마도 홍수의 재난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昔’字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 日과 𣎵는 洪水가 泛濫하는 시대를 나타내며, 이것이 ‘昔’의 造字本義가 되어, 고대의 대 홍수 발생 시기¹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말린 고기, 오랜 시간이 흐른 과거

갑골문 자형에 보이는 “𣎵”를 고기 조각, “𣎷”는 태양에 말린 고기 조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說文』에서, “昔, 乾肉也。從殘肉, 日以晞之。與俎同意。”(昔은 말린 고기를 말한다. 고기의 잔 부스러기의 의미를 따른다. 태양으로 고기를 쪄서 말린 것을 말하고 俎와 同意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俎”에 보이는 “𣎵”는 고기를 토막 낸 것이고, “且”는 제물을 담은 제기나 도마로 볼 수 있다.¹⁵⁾ 그리고 ‘昔’의 전서 자형은 𣎹이고 𣎺은 籀文자형인데 籀文 자형에 보이는 月은 肉의 의미이고, 隸變으로 𣎺은 ‘腊’字形으로 변화되어 脯臘(말린 고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說文·肉部』에 보면, “臘, 冬至後三戌, 臘祭百神。从肉嶺聲。”라고 하여, ‘臘’은 冬至 후, 세 번째 戌日로 臘祭의 날이며, 百神에게 臘祭를 드린다고 하였다. 『段注』에도 ‘臘’은 본래 제사 이름이라고 했다. 당시, 제사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고기였다. 이런 연유로, 臘의 간체자로 ‘腊’字가 사용되면서, ‘腊’字는 多音字가 되었다.

13)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p.607.

14)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p.607.

15)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p.607.

李孝定도 ‘腊’의 본의가 말린 고기¹⁶⁾라고 하였듯이, ‘昔’에서 분화되어 나온 ‘腊’는 말린 고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初文인 ‘昔’은 말린 고기라는 의미에서 인신되어 ‘오래되다’, ‘長久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周禮·天官·酒正』에 보이는 “辨五齊之名, 一曰泛齊, 二曰醴齊, 三曰盎齊, 四曰緹齊, 五曰沈齊。辨三酒之物, 一曰事酒, 二曰昔酒, 三曰清酒。辨四飲之物, 一曰清, 二曰醫, 三曰漿, 四曰醕。”(五齊의 각종 명칭을 변별해보자면, 첫째는 泛齊, 둘째는 醴齊, 셋째는 盎齊, 넷째는 緹齊, 다섯째는 沈齊이다. 세 종류가 되는 술의 명칭을 변별해 보자면, 첫째는 事酒, 둘째는 昔酒, 셋째는 清酒이다. 네 종류가 되는 음료의 명칭을 변별해보자면, 첫째는 清, 둘째는 醫, 셋째는 漿, 넷째는 醕이다.)의 “昔酒”가 바로 빛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술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昔’이 오래되다, 장구하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甲骨文	『說文解字』	現在
古	방패, 갑옷, 그릇, 견고	과거, 입으로 전하다.	오래 전 과거
昔	홍수, 오래 전	말린 고기, 오래 전 과거	어제, 가까운 과거, 오래 전 과거

V. 『孟子』의 ‘古’와 ‘昔’에 대한 時代 解釋

1. ‘古’의 時代

1) 夏, 殷, 周代 및 春秋時代

- “周霄問曰。古之君子仕乎。孟子曰。仕。”(周霄가 물었다. “옛 군자가 벼슬하였습니까?” 孟子가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古之人三月無君 則弔”(옛사람은

16) 李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2004, 6册, pp.431-434.

석 달 동안 군주가 없으면 안부를 묻는다.) 古之人未嘗不欲仕也。又惡不由其道。(옛날 사람들도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또 도리에 맞지 않음을 싫어하였다.) 孟子曰, 古者不為臣不見。(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신하가 되지 않고서는 보지 아니하였다.) 『滕文公下』

“孔子三月無君 則皇皇如也 出疆必載質”(공자는 석 달 동안 군주가 없으면 불안해하였고, 국경을 나설 때 반드시 예물을 실었다)에도 보이듯이, 옛 사람들에게도 벼슬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듯하다. 『孟子』에서도 벼슬을 대하는 옛 사람들의 자세에 대하여 논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段干木踰垣而辟之, 泄柳閉門而不內, 是皆已甚. 迫, 斯可以見矣.”(단간목은 담을 넘어서 피하고, 설류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 너무 심하다. 절박하면 볼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보인다. 여기서서 孟子가 비록 “古者不為臣不見.”라고 하여, 옛날에는 신하가 아니면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段干木과 泄柳가 담을 넘어 피하거나,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段幹木은 魏 文侯 때 사람이고, 泄柳는 魯 繆公 때 사람으로 文侯와 繆公이 만나보고자 했을 때,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다고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모두 춘추시대의 일로 孟子의 바로 전 시대이다. 여기서 ‘古’는 夏代, 殷代, 西周 時代보다는 가까운 춘추시대로 孟子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陳子曰, 古之君子, 何如則仕. 孟子曰, 所就三, 所去三.”(陳子(가) 옛날의 군자는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였는지 물으니, 맹자가 나아감이 세 가지가 있고 떠나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告子下』

陳子(는 陳臻(를 말하는데 孟子의 제자이다. “所就三, 所去三”에 대한 맹자의 대답을 보자. “迎之致敬以有禮, 言將行其言也, 則就之; 禮貌未衰, 言弗行也, 則去之. 其次, 雖未行其言也, 迎之致敬以有禮, 則就之; 禮貌衰, 則去之. 其下, 朝不食, 夕不食, 飢餓不能出門戶. 君聞之曰: 吾大者不能行其道, 又不能從其言

也, 使飢餓於我土地, 吾恥之. 周之, 亦可受也, 免死而已矣.” (맞이하길 공경함을 지극히 하여 禮가 있고, 말하면 장차 그 말을 실행한다면 나아가고, 예를 갖춘 모습이 쇠하진 않았지만 말이 실행되지 않으면 떠난다. 그 다음은 비록 그 말을 실행하진 않지만 맞이하길, 공경함을 지극히 하여 禮가 있으면 나아가고, 예를 갖춘 모습이 쇠하면 떠난다. 그 다음은 아침에 먹지 않고, 저녁에 먹지 않아, 굶주려 문을 나가지도 못하면 임금이 그 얘길 듣고, ‘내가 크게는 당신이 얘기한 도를 행하지 못하고, 또한 말을 따르질 못해 나의 땅에서 굶주리게 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구휼해준다면, 또한 받을 만하다. 죽음만을 면할 뿐이다.) 처음에는 예의와 의견의 실행까지 모두 중히 생각하여, 실행되면 나아가고, 예의만 있고, 의견이 실행되지 않으면 떠나간다. 다음에는 의견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예의가 있으면 나아가고, 예의까지 사라지면 물러간다. 마지막으로 굶주리지만 않게 해주면 머무른다. 벼슬을 대하는 또 다른 옛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례를 『孟子·萬章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이란 한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孟子·萬章下』에 보면,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백이는 눈은 나쁜 색깔을 보지 않고, 귀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다. 자기에게 맞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기에게 맞는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났다.)라고 하여 백이의 청렴함을 칭송하였다. 伯夷는 은나라 주왕시대 사람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 벼슬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물러나 은둔한 사람이다. “伊尹曰: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伊尹은 말하기를 누구를 섬긴들 군주가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나아갔다.) 伊尹은 夏나라 桀王 시대의 사람으로 탕왕을 도와 한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다. 다음으로 “柳下惠不羞汙君, 不辭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柳下惠는 나쁜 군주 섬기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벼슬이라고 안 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재능을 감추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원칙대로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柳下惠는 춘추시대 노나

라 사람이며, 더러운 세상이라도 신념을 가지고 세속에서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의 동생이 盜跖이라고 한다. 맹자는 또한 공자에 대하여, “可以速而速, 可以久而久, 可以處而處, 可以仕而仕, 孔子也.”(속히 떠날 것 같으면, 속히 떠나고, 오래도록 할 만하면 오래 하고, 머물러 있을 만하면 머물러 있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한 사람이 공자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벼슬의 거취를 정한 분이라고 하였다. 즉 위에서 말하는 벼슬과 관련된 옛 사람들인 “古之人”은 한 사람, 한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夏, 殷, 周, 春秋 등 여러 시대를 통시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 “王之好樂甚。則齊其庶幾乎。今之樂。猶古之樂也。”(왕께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면 제나라는 아마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지금의 俗樂이 옛 선왕의 음악과 같습니다.

여기서 “古之樂”은 어떤 시대의 음악을 말하는 것일까, 유교문화에서 음악에 대한 숭상은 거의 정치화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古之樂”의 “古”는 한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黃帝 시대의 음악인 《咸池》, 顓頊의 《六莖》, 帝嚳의 《五英》, 帝堯의 《大章》, 帝舜의 《大韶》, 禹의 《夏》, 成湯의 《濩》, 武王의 《武》, 周公의 《勺》 등을 전부 아우른다. 《禮記·樂記》에서 君子는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是故不知聲者, 不可與言音, 不知音者, 不可與言樂; 知樂則幾於禮矣。禮樂皆得, 謂之有德。德者得也。”(소리를 살피서 음을 알고 음을 살피서 악을 안다, 악을 살피서 정치를 안다, 이렇게 해야 다스리는 길이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음을 논할 수 없다. 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음악을 논할 수 없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악을 모두 이해하였으면, 이것을 일러 德이 있다고 말한다. 德이란 바로 얻었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고, 孔子는 齊에서 帝舜시대의 음악인 《大韶》을 들으며, “盡美矣, 又盡善也.”(음악의 형식이 대단히 아름답고, 내용도 매우 착하구나.)라고 칭찬하면서 고기의 맛도 잊었다고 하고, 周武王 시대의 음악인 《武》을 들었을 때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살기가 너무

심하다는 의미로, “盡美矣, 未盡善也.”(음악의 형식이 대단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내용에 있어 착함은 좀 부족하구나.)라고 했다. 또 孔子는 “君子三年不為禮, 禮必壞; 三年不為樂, 樂必崩.”(군자가 삼년동안 예를 하지 않으면 예는 무너지고 삼년동안 악을 하지 않으면, 악이 무너진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樂을 禮와 동등한 지위로 높였다. 周代에 와서 비교적 완성된 음악체계가 세워지고, 春秋시대에는 禮樂을 통하여 교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孟子가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유가들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알기에 齊宣王이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은 “崇德”의 작용을 하는 先王의 음악이 아니고, 세속 시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俗音이라고 한 것이다. 孟子는 현재의 음악도 고대의 음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비록 雅俗의 구분은 있으나 “崇德”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古之樂”의 古란 한 시대의 음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해오는 음악들을 모두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中古와 周代

- “古者棺槨無度。中古棺七寸。槨稱之。”(옛날 관곽(棺槨)에 법도가 없었다. 中古에는 棺이 七寸이고, 槨木을 棺木의 두께와 서로 맞게 맞추었다.) 『公孫丑下』

여기서 말하는 中古시대를 『禮記』에서는 신농씨 시대, 『句讀』과 『義證』에서는 文王시대라고 하였다. “古者棺槨無度”라고 하는 것은 棺槨制度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中古에 棺을 七寸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制度化된 周代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中古는 周 文王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古者棺槨無度”의 古는 上古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謂其沼曰靈沼。樂其有麋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그 연못을 靈沼라고 하였고, 그곳에는 큰 사슴, 작은 사슴, 물고기와 자라 등이 있어서 그것을 즐겼다. 옛사람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워하였기에, 진정으로 즐거

움을 누릴 수 있었다.), “故推恩足以保四海。不推恩無以保妻子。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善推其所為而已矣。”(그래서 은혜를 확충하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고, 은혜를 확충하지 않으면, 처자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나왔던 부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의 좋은 행위를 잘 확충했을 따름입니다.) 『梁惠王上』

- “孟子對曰。取之而燕民悅。則取之。古之人有行之者。武王是也。取之而燕民不悅。則勿取。古之人有行之者。文王是也。”(孟子가 대답하였다.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연나라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점령하였습니다. 옛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무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점령하였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옛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문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梁惠王下』

여기에 출현하는 “古”字는 주로 周代나 周代와 관련된 인물 생존 시대를 가리킨다. 위에서 “古之人”이라 함은 문왕을 가리키는데 孟子가 梁惠王을 만나러 갔을 때 梁惠王이 물기를 자기의 동산은 크지도 않은데 백성들이 원성을 일삼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하고 묻자, 孟子가 文王은 그 크기가 양혜왕의 동산보다도 컸지만 백성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대답하는 장면으로 여기서 칭송의 대상인 “古之人”은 文王을 가리킨다. 그 다음 예문의 칭송 대상인 “古之人”은 문왕과 함께 무왕을 가리킨다.

2. ‘昔’의 時代

1) 어제

- “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왕께서는 가까운 신하도 없으니, 어제 등용한 신하가 오늘 없어져도 모르고 계십니다.) 『梁惠王下』
- “昔者辭以病。今日吊。或者不可乎!” 曰：“昔者疾。今日愈。如之何不吊?”(어제 병으로 사양하시고 오늘 조문하심은 혹시라도 불가한 듯합니다.”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어제의 병이 오늘 나았으니 어찌 조문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셨다.) 『公孫丑下』

- “昔者有王命，有采薪之憂，不能造朝。(어제는 왕명이 있었으나, 땀감을 페느라 피곤하여 조회에 나갈 수 없었다.)” 『公孫丑下』

위에서 말하는 “昔”은 모두 어제를 나타내고 있다. 『離婁上』 “子來幾日矣?” 曰, “昔昔。” 曰, “昔昔則我出此言也, 不亦宜乎?” (“그대가 온 것이 몇 날이나 되었는데?” “며칠 전에 왔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의 “昔”은 ‘며칠 전’으로 볼 수 있어서, 가까운 과거이다. 이와 같은 예를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2) 가까운 과거

- “昔者竊聞之，子夏、子遊、子張皆有聖人之一體，冉牛、閔子、顏淵則具體而微。敢問所安。”(전에 제가 들으니, ‘子夏, 子遊, 子張’은 성인의 일부분을 갖추었고, 염우, 민자, 안연은 전부 갖추었으나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맹자께서는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요, 자처하시는 바를 여쭙겠습니다.) 『公孫丑上』
- “昔者孟子嘗與我言於宋，於心終不忘。”(저번에 孟子께서 일찍이 나와 송나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서 끝내 잊혀 지지 않습니다.) 『滕文公上』

孟子와 公孫丑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맹자가 말한다. “편파적이고 부정한 말을 들으면, 그 은폐된 바를 알 수 있고, 방탕한 말을 들으면, 그 탐닉된 바를 알 수 있으며, 사악한 말을 들으면, 벗어난 바를 알 수 있고, 발뺌하는 말을 들으면, 그 곤궁한 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그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말로 그 정치와 행정에까지 위해가 미치고, 정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들은, 일을 행함에 위험과 재해가 따르게 할 것이다. 만약에 성인이 다시 오신다고 하여도 반드시 나의 이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諛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生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其事。聖人復起，必從吾言矣。 이 말에 대하여 공손추가 맹자에게 질문한다. “宰我와 子貢은 말씀씨가 뛰어났고, 冉牛, 閔子, 顏淵은 說明과 덕행에 뛰어났으며, 孔子는 이 둘을 다 겸

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스스로 언사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바로 성인이십니까?”(幸我, 子貢善為說辭, 冉牛、閔子、顏淵善言德行。孔子兼之, 曰 : 『我於辭命則不能也。』 然則夫子既聖矣乎?) 공손추가 생각하기를 말을 잘 구사한다고 하는 것은, 성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며, 공자도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맹자 당신께서는 말을 잘 안다고 하시니 그럼, 공자보다 뛰어나신 성인이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맹자가 답하기를, “예전에 子貢이 孔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까?’라고 하니, 孔子는 ‘聖人は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배움에 싫증내지 않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을 따름이다.’라고 하셨다. 이에 대하여, 子貢은 ‘배움에 싫증내지 않는 것은 智慧로운 것이요, 가르침에 나태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인 것이다.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바로 성인이시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이미 성인이신 공자께서도 성인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나에게 성인이라고 물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나?”(昔者子貢, 問於孔子曰 : ‘夫子聖矣乎?’ 孔子曰 :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也。’ 子貢曰 : ‘學不厭, 智也; 教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既聖矣!’ 夫聖, 孔子不居, 是何言也?)”라고 하였다. 즉, 자공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언어를 잘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을 지니고 있으면, 성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성인을 판단하는 자공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지혜와 사랑을 갖추시고, 이미 성인이신, 공자도 성인을 자처하지 않으셨거늘 공자를 배우는 자신이 어찌 성인을 자처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다. 그러자, 공손추가 다시 孟子에게 ‘그럼, 공자 문하의 여러 제자 가운데 어떤 반열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어 보는데, 이 장면과 滕文公이 송나라에 있던 孟子를 만났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은 모두 孟子 當代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昔’은 가까운 과거를 말한다.

3) 春秋時代

- “昔者趙簡子使王良與嬖奚乘，終日而不獲一禽。”
(예전에 조간자가 왕량을 시켜서 총애하는 신하인 해를 위하여 그의 수레를 몰이주게 하였는데, 날이 저물도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했다.) 『滕文公下』

여기서 “昔者”는 춘추시대를 가리킨다. 여기서 시대 배경이 春秋時代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였다. 趙簡子(? - 前476年)는 春秋時期, 晉나라 趙氏 집안사람으로 原名은 趙鞅이고, 趙孟이라고도 불린다. 『趙氏孤兒』에 나오는 孤兒인 趙武의 손자이다. 晉나라 昭公때, 公族이 힘이 약하고, 大夫의 勢力이 강했다. 그때 趙簡子는 大夫가 되어 改革에 힘쓰며 나라 일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子產使校人畜之池。(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자산에서 산 물고기를 보내주었는데, 자산이 교인에게 연못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萬章上』

鄭子產(?—B.C.522年)은 春秋時期의 政治家, 思想家로 名은 僑, 字는 子產 혹은 子美이며, 시호는 成이고, 鄭穆公의 손자라고 한다. 기원전 554년에 卿이 되었고, 기원전 543년에 政권을 잡았으며, 鄭簡公과 鄭定公을 보좌하였다고 한다.

- “昔者齊景公問於晏子曰:“(예전에 제경공이 안자에게 묻기를) : 『梁惠王下』
- “昔齊景公田，招虞人以旆，不至，將殺之。”(예전에 景公이 사냥하러 갔을 때, 虞人을 털 달린 깃발(旆)로 신호를 하여 불렀는데, 오지 않으므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 『滕文公下』

景公(?—前490年)은 春秋時代 齊나라 君主이다.

- “昔者曾子謂子襄曰：‘子好勇乎?’”(예전에 증자가 제자인 자양에게 말했다.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公孫丑上』

재상을 지냈다고 한다. 후에 “端木遺風”, “君子愛財, 取之有道” 등의 정신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고, 중국에서 財神으로 숭배를 받았다. 王豹는 春秋시대 衛나라의 명가수였고, 蘇駒는 齊나라의 명가수였다고 한다.

4) 周王朝 祖上

- “昔者公劉好貨。” (옛적에 公劉라는 현자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梁惠王下』
-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孟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공유의 9대손인 태왕인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께서도 여자를 좋아했기에, 그의妃를 사랑했습니다.) 『梁惠王下』
-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居焉。” (孟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께서 빈 땅에 사실 때 오랑캐가 침략하자 빈 땅을 떠나 기산 아래로 옮겨가서 사셨습니다.) 『梁惠王下』

公劉의 상세한 生卒年代는 미상이며, 姓은 姬이며, 이름은 劉이다. ‘公’은 尊稱이다. 古代周部落의 걸출한 지도자로 알려진 公劉은 黃土高原에 거주하다 훈족의 침입을 받아 豳땅으로 이주해 나라를 세웠다. 300년 후 周祖 後稷(姓이 姬, 이름은 棄)의 第12世孫이자, 公劉(後稷의 증손자)의 9세손 古公亶父가 다시 훈족의 침략으로 이 땅을 내어주고 岐山으로 나라를 옮겼으며, 周代에 있어서 後稷과 公劉의 偉業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文王과 武王의 盛世를 이은 사람으로, 周文王의 祖父이며, 周王朝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다. 周武王이 天下를 탈취한 후, 古公亶父를 周太王으로 추존하였다.

-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孟子가 답하였다. “옛적에 문왕이 岐周를 다스릴 때에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1/9세를 받았고,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祿을 지급하였다.) 『梁惠王下』

滕나라 文公은 齊나라가 滕나라와 가까운 薛나라에 성을 쌓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껴 孟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孟子는 直답을 하지 않고, 周나라 조상 大王이 狄人의 침략을 받아 빈 땅을 떠나 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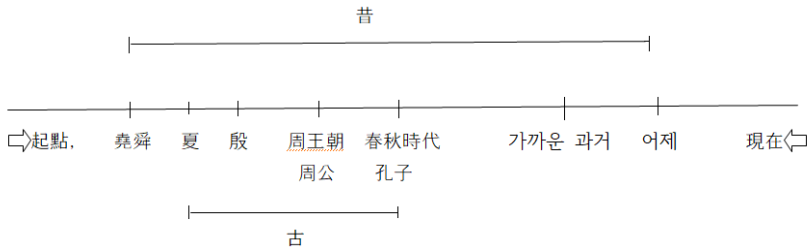
山아래로 이주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이것은 滕文公에게 나라를 만드시
옵기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大王이 부득이 이주했지만, 그의 자손 文王은
은나라 말에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文王의 아들 武王은 殷나라를 征
伐했다는 점을 想起시켜, 孟子는 滕나라 文公에게 현실 상황을 명확히 과
악해서 국가사업의 실마리를 열어 후손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라고 激勵을 하고 喚起를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堯舜, 夏朝, 周公, 孔子

- “昔者堯薦舜於天而天受之，暴之於民而民受之，故曰：天不言，以行與事示之而已矣。”(옛날에 요(堯)가 순(舜)을 하늘에 추천하여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과 일로써 보여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萬章上》
- “昔者舜薦禹於天，十有七年，舜崩。”(옛날에 순임금이 하늘에 우임금을 추천하였고 17년이 되었는데 순이 돌아가셨다.) 《萬章上》
- “昔者禹抑洪水而天下平，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옛적에 우임금께서 홍수(洪水)를 억제하시자 천하가 화평해졌고, 주공께서 이적(夷狄)을 겸병하고 맹수를 몰아내시자, 백성들이 편안해 지셨고, 공자가 춘추를 지으시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 《滕文公下》

堯와 舜은 上古時代 明君으로 일컬어지며, 후에 聖人으로 추앙받았다. 夏나라는 기원전 약 2070에서 기원전 1600대에 있었다고 하는 왕조이다. 위의 “昔”은 堯舜과 夏 시대를 비롯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일어난 일을 기록할 때도 사용하였고, 周公, 孔子까지 칭송할 인물을 논할 때, 그 시대를 모두 “昔”이라고도 하였다.

『孟子』에서 나타나는 ‘古’와 ‘昔’에 대한 시대구분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와 같은 시대 해석이나 구분은 문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러 字書, 先秦文獻 『古辭辨』, 甲骨文字形 解釋, 『說文解字』 解釋 등을 참고하여, 『孟子』에 나타나는 ‘古’와 ‘昔’에 대한 시대구분을 시도하여 보았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가 이후 고대 문헌의 시대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VI. 結論

지금까지 본고는 古와 昔에 대하여 여러 字書, 先秦文獻 『古辭辨』, 甲骨文字形 解釋, 『說文解字』 解釋 등과 『孟子』에서 나타나는 ‘古’와 ‘昔’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참고하여 ‘古’와 ‘昔’에 나타나는 시대에 대한 규정 및 해석과 구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古’는 上古, 中古, 下古로 구분하고, 上古 시대는 인류의 까마득히 먼 과거 시대로, 문자가 없었고, 結繩으로 통치하였으며, ‘昔’이라고도 하였다.

『古辭辨』에서는 비록 ‘古’와 ‘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古’가 오래된, 과거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昔’은 이 의미와 까마득한 과거, 어제, 가까운 과거의 시간까지도 포함한다고 분석하였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字形, 字義에 관한 설명을 종합하면, ‘古’는 방패, 견고한 갑옷, 전쟁, 이야기 등의 정보를 담아낸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오

래전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는 의미에서 오래전 과거라는 의미도 생성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昔'字에서는 홍수, 오래전 시대, 과거, 말린 고기 등의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데, 이들 정보는 오래전 지난 과거, 가까운 과거, 어제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孟子』에서도 '古'와 '昔'을 찾아 볼 수 있다. '古'는 夏殷周와 春秋時代를 두루 표현하면서도 특히 周王朝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하여 칭송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昔'은 포괄하는 시간적 편폭이 '古'보다 확장되어 나타난다. 가깝게는 어제나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고, 멀게는 春秋時代, 殷, 夏, 堯舜 時代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이는 '古'와 '昔'에 대하여 단순히 '과거', '오래 전' 등의 의미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文脈의 上下關係를 파악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시대를 읽어 낼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고는 향후, 『孟子』 이외에도 문헌의 특징에 따라 시대적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古'나 '昔'에 대한 되는, '古'나 '昔'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도출해 내는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古'와 '昔'에 대하여, 좀 더 주의하여 시대적 흐름을 궁구하고, 문헌을 이해하면, 해당 내용과 그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이해도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헌해독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학교 수업에도 적용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고, 현재에 응용하는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參考文獻〉

-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出版, 2008.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1.
-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7.
- 王力, 『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0.
- 王念孫,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2000.
- 王寧, 『古代漢語』, 北京出版社, 2002.
-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https://max.book118.com/1993>
- 李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2004.
- 李珍華,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出版, 1999.
-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出版, 2009.
-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1983.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東漢許慎者:湯可敬撰), 上海古籍出版社, 2018.
- 許慎撰, 徐鉉等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2018), 『漢語大字典』, 崇文書局;四川辭書出版社.
[http://zidian.911cha.com/zi90e8.html/新華字典\(Xinhuaazidian\)\(검색일:2019.6\)](http://zidian.911cha.com/zi90e8.html/新華字典(Xinhuaazidian)(검색일:2019.6))
[http://www.zdic.net/z/19/js/60D4.htm/漢典\(Handian\)\(검색일:2019.6\)](http://www.zdic.net/z/19/js/60D4.htm/漢典(Handian)(검색일:2019.6))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Jingdian)(검색일:2019.6)
[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Hanjidianziwenxian\)\(검색일:2019.6\)](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Hanjidianziwenxian)(검색일:2019.6))
<http://xh.5156edu.com>: 康熙字典(Kangxizidian)(검색일:2019.1.1.)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Classification of '古' and '昔' as Time Words

Lee Keoung-suk* · Moon Chi-ung**

This essay refers to many scripts and ancient texts, The interpretation of the letters of 古辭辨 and 甲骨文, and the interpretation of 『說文解字』. By exploring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s of '古' and '昔' in 『孟子』, I have considered the details, regulations, interpretations, and divisions of time and times in “古” and “昔”.

'古' can be divid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ages through scripts and ancient texts. Especially, the upper age is a far-distant past of mankind. I could tell. In 『古辭辨』, though, he did not directly compare and analyze “古” and “昔”. However, the description is relatively detailed. The emphasis is on “old”, which refers to a long time ago and the past. '昔', along with this meaning, includes the past, yesterday, and the near past. Comprehensive explan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explan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characters of 『說文解字』, '古' holds information such as shields, solid armor, wars, and stories. In the sense that the story was passed down from mouth to mouth long ago, the past was created.

'昔' refers to information such as the flood, long ago, past, and dried meats. This information expresses the meaning of long time ago, past past, near past, and yesterday. You can find '古' and '昔' in 孟子. '古' is used to express 夏殷周 and 春秋時代. In particular, it is a word commonly used to praise people related to 周王朝. '昔' appears to expand in time. Yesterday, near past, 春秋時代, 殷 夏, 堯舜 times. Like '古', it was also used to discuss a character that could be admired over many times.

【Key words】 Yesterday, close past, long ago, flood, shield, war

투고일 : 11월 09일, 심사완료일 : 12월 03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 First author: Lecturer of Kongju Univ. / jing20000219@hanmail.net

** Director of Hongik Foundation. / cumoon@hanmail.net

